

“시는 기다림... 도시 유목민 슬픔 담아”

여수 출신 마경덕 시인, ‘그녀의 외로움은 B형’ 펴내
2003년 등단 “내 기억의 절반은 여수 바닷가...작품에 오롯이”

“기억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물결을 반짝이는 바다와 젖은 발로 달려오는 바람이 떠오릅니다. 여수의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이지요.”
시인은 남쪽의 바닷가 여수를 그렇게 표현했다. 좀더 시적인 표현에 따르면 “눈부신 봄날, 신은 물빛 맑은 여수에 나를 낳으셨다”고 덧붙였다.
시인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닮는다. 시인뿐 아니라 모든 문인은 고향의 아우라를 닮는다. 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속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다. 고향은 원초적인 공간으로서의 문학적 DNA를 물려주기 때문이다.



마경덕 시인

여수 출신 마경덕 시인. 지난 200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 이번에 시집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상상인)을 펴냈다.
시인과의 통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동백이 피고 물새가 날아오르는 여수의 풍경을 잊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강렬하게 남은 여수의 풍경을 시인은 그리워했다. 유년과 청소년 시절의 기억이 서린 여수의 바다가 그의 문학세계의 자양분이 됐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차분하면서도 진절절한 느낌이 시인의 성정을 짐작하게 했다.
이번에 펴낸 시집은 지난 2012년 시인들이 뽑은 좋은 시집 ‘글러브 중독자’ 개정판이다. 시인은 “시집이 품절돼 구하지 못한 독자들의 요청이 많아 출판사 ‘상상인’에서 제목을 바꾸고 개정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활동을 하지만 일 년이면 수차례 고향 여수를 방문한다는 시인은 “떨어지는 통통배 소리와 파도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차지한 절반의 기억은 여수 바닷가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집의 전반적인 주제는 도시 유목민들의 슬픔이다. 시인의 의식 저변에는 문득문득 여수의 바다가 출몰한다.
“빛장을 지른 파도 한 방울 스미지 않는 밤, 철썩

놓여 있는 것도 같다. 한편으로 글을 쓰는 일이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에 그 진실은 경계 어디쯤에 자리하는지 모른다.
“시 쓰기는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절함을 전하거나 견딜 수 없는 간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간절해지는 작업입니다. 나의 시는 어쩌면 ‘살을 유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의 문인들은 학창시절 작문 시간에 쓴 글이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마경덕 시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초등학교 때 쓴 동시를 보고 선생님이 “너는 커서 글을 써야 해”라는 격려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 시인은 결혼을 하면서 글쓰기와 멀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왜 좋아하는 글을 쓰지 않느냐”는 어린 막내딸의 질문에 “오랫동안 방치했던 감성이 충만 되는 것”을 느꼈다. 글을 쓰기로 하고 얼마 후 주부백일장에 도전했는데 장원을 차지했다. 그때부터 다시 시를 쓰게 됐다.
마 시인은 늦깎이로 문학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좋은 시를 찾아보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니 라면상자로 세 상자 분량이 됐다”며 “문학의 자신과의 싸움이자 기다림과의 싸움”에 목격지에 닿기 전까지 쉬지 않고 견조하고 결심했다. 그렇게 2003년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이후 ‘신발론’, ‘사물의 입’ 등 주목받는 작품집을 발간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꾸준히 펴낼 계획이다.
“파도에 너울거리는 미역처럼 참을 수 없는 비릿한 것들이 내 기억속에서 끊임없이 출렁거립니다. 앞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산문도 정리해 책으로 묶어낼 예정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03년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이후 ‘신발론’, ‘사물의 입’ 등 주목받는 작품집을 발간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꾸준히 펴낼 계획이다.
“파도에 너울거리는 미역처럼 참을 수 없는 비릿한 것들이 내 기억속에서 끊임없이 출렁거립니다. 앞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산문도 정리해 책으로 묶어낼 예정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매튜 본이 안무한 ‘백조의 호수’.

명작 만나는 LG아트센터 디지털 스테이지

5월 8일부터 두달간 매주 금요일
매튜본 ‘백조의 호수’, ‘니진스키’ 등
요일 오후 8시 LG아트센터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 LG유플러스 U+tv, U+tv모바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첫 작품은 세계적 안무가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5월15일)다. 알렉산더 에크만이 연출한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6월5일)와 비교해서 볼 만하다. 아르칸 칸이 안무한 ‘지젤’ (5월22일)과 ‘초토 데슈’ (6월12일)도 상연되며 올해 내 한할 예정이던 크리스탈 파이트가 안무하고 연출한 ‘베트로렌하이트’ (6월26일)도 만난다. 이밖에 아르보 페르트의 음악을 바탕으로 로버트 윌슨이 연출한 ‘아담 수나극’ (6월19일)과 존 노이마이어가 안무한 함부르크 발레단의 ‘니진스키’ (7월3일)도 관람할 수 있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아시아에 사는 우리들 이야기’ ACC 창작공연 이야기 공모전

아시아를 소재로 한 이야기 공모전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제2회 ACC 창작공연 이야기 공모전 ‘아시아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현재 아시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와 일화다.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역사·사회·문화·인권 등 아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로 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결과는 서류 심사(구성 우수성·공연 제작 가능성)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순 당선작을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다. 대상 수상자에게 300만원을 수여하는 등 총 16명에게 상금 90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된 이야기는 전문 예술가들의 기획·창작을 거쳐 오는 11월 선보임공연(쇼케이스)에 이어 내년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응모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ACC 홈페이지 ‘ACC 소식란’의 ‘제2회 ACC 창작공연 이야기 공모전 : 아시아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게시글 접수창에 1000자 이내 이야기를 작성하면 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동문화예술촌, 8월 16일까지 어린이예술전시 ‘나, 너, 우리’

오래된 주조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어린이를 위한 전시를 준비했다.
전시 열리는 예술촌 소동동은 어린이를 위한 전용 예술공간이다. 공간 이름 ‘소동동’은 작은 아이를 뜻하는 소동(小童)과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행위로 인한 파장을 의미하는 소동(騷動)의 의미를 담아 지었다.
오는 8월16일까지 ‘나, 너, 우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몸과 가족, 인종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경험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는 백상옥 작가를 초청해 ‘그림 이야기로 보는 무리의 다양화’ ‘놀이로 참여하는 색과 형태의 다양성’ ‘몸의 차이’ 등 세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전시 기간중에는 어린이예술교육프로그램 ‘상상나라’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동문화예술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일상과 예술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방안을 담은 뮤직비디오 ‘하나 되는 담빛의 마음’을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